선진미술관서 배운다 유럽편

⑲이탈리아 밀라노 브레라 미술관

미술과 신화의 조화…르네상스 종교 회화 '풀 컬렉션'

밀라노=정상필 EU특파원

도서관·연구소 등 함께 복합문화공간
1809년 나폴레옹이 미술관으로 개관
연중 내내 관람객 위한 특별전시회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Lombardia)의 주도(州都) 밀라노는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다. 로마가 정치의 중심이라면 밀라노는 경제의 중심이다. 같은 나라의 도시 풍경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이탈리아의 남부와 북부는 한 눈에 봐도 빈부격차가 느껴질 정도다. 페라리 등 최고급 스포츠카의 고장, 최첨단 패션을 주도하는 섬유산업의 중심, 밀라노가 지금의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교통이 발달한 지리적 요건 때문이었다.

경제적 풍요로움이 문화의 발달로 이어지는 법칙은 밀라노에서 예외가 아니다. 30여개에 달하는 미술관 숫자와 이곳에 방문하는 매년 250만명의 관람객 수가 그 사실을 증명한다. 밀라노의 여러 미술관 중에서도 가장 풍부한 소장품을 지니고 있는 곳이 올해로 설립 200주년을 맞은 브레라 미술관(Pinacoteca di Brera)이다. 도서관, 연구소, 아카데미 등이 함께 운영되는 이곳은 밀라노가 현대에 들어서면서 얻고 있는 아이콘들의 다소 가벼운 느낌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브레라 미술관이 있는 이곳은 미술관 뿐 아니라 브레라 국립 도서관, 롬바르디아 문학 및 과학 연구소, 천문 관측소, 브레라 식물원, 브레라 미술 아카데미 등이 있는 복합 문화공간이다. 건물은 1571년 교황 그레고리우스 13세에 의해 건립돼, 엄격한 규율의 남자 수도회로 유명한 예수회에 헌정됐다. 교육사업을 벌였던 예수회는 이 건물을 수도원 외에 대학으로도 사용했다. 여러 차례 확장을 거쳤으며 건물은 예수회가 해체된 뒤인 1773년 공립화된다. 이후 프랑스 왕 루이 16세의 부인 마리 앙투와네트의 어머니로 유명한 합스부르크 왕조의 마리 테레사 왕비가 1776년 이 건물에 미술학교와 식물원 등을 세웠다.

지금도 건물의 안쪽 뜰은 검은 색 수도복을 길게 늘어뜨린 예수회 수도사들이 명상에 잠겨 거닐고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을 준다. 전시된 회화도 주로 성경을 형상화한 종교화가 많아, 수도원 냄새가 물씬 풍기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물 내부 뜰의 한 가운데엔 미술관 건립의 일등공신인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의 반라 조각이 버티고 서 있다.

로마의 황제로 등극한 나폴레옹은 1809년 브레라 미술관을 개관한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반에 이어지는 나폴레옹 시대는 미술의 재발견 시기로 볼 수도 있다. 브레라 미술관과 같은 시기에 세워진 곳이 각 도시를 대표하는 볼로냐 미술관, 베네치아 아카데미아 미술관 등이다. 나폴레옹은 이탈리아의 곳곳에서 좋은 작품들을 빼앗아 갔지만, 큰 도시에 미술관을 세우는 데도 앞장선 것이다. 파리의 작품을 이탈리아 미술관에 양도하기도 했다. 미술관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루벤스의 '최후의 만찬'(1640)은 1813년 파리에서 이곳으로 옮겨져 지금까지 이곳에 소장돼 있다.

롬바르디아 지방이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던 1820년부터 미술관이 폐쇄됐다가 이탈리아 독립 후인 1860년 대중에게 다시 문을 열었다. 이후 추가로 꾸준히 소장품을 늘려 지금에 이른다. 프란체스코 아예츠의 '키스'(1859), 안드레아 만테냐의 '죽은 예수'(1490), 라파엘로의 '성모의 혼인'(1504), 카라바조의 '엠마오의 저녁식사'(1601) 등이 주요작으로 꼽힌다. 건물의 2층에 40여개의 전시실이 마련돼 있으며, 1층은 미술학교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브레라 미술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미술관을 제집 드나들 듯 하며 세계적인 화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 학생들이 밀라노, 나아가 이탈리아 미술과 문화의 한 축을 책임질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200살 생일을 맞은 올해 브레라 미술관은 일년 내내 다양한 행사로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1월부터 3월 말까지 진행된 카라바조 특별전에는 로마와 런던, 뉴욕 등의 주요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음악 연주자들'(1596), '과일바구니를 든 소년'(1594) 등 카라바조의 작품을 공수해와 선보였다. 또 라파엘로의 작품인 '성모의 혼인'과 미술관 뜰 안에 전시된 나폴레옹 조각상의 복원 작업을 관람객에 공개하는 행사를 열기도 했다. 이 밖에 롬바르디아 출신 화가들의 작품을 모은 전시회, 화가들의 자화상을 모은 전시회, 미술관이 보관 중인 1·2차 세계대전 당시 밀라노를 담은 사진 전시회 등이 줄줄이 열리고 있다.

/camus@kwangju.co.kr

나폴레옹의 반라 조각상이 인상적인 브레라 미술관 안 뜰. 아이러니하게도 이 미술관을 연 것은 침략자 나폴레옹이었다.

브레라 미술관 전시실에서 열리는 성인 대상 미술 강의. 미술관보다 역사가 긴 것이 브레라 미술학교다. 예술작품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으로 연결하는 마인드가 밀라노를 문화도시로 만드는 힘이 되고 있다.

1,119쪽 분량 '코덱스 아틀란티쿠스' 6년에 걸쳐 일반에 공개

■암브로시아나 도서관 다 빈치 스케치 전시

밀라노의 브레라 미술관과 두오모 광장에서 멀지 않은 암브로시아나 도서관(Biblioteca Ambrosiana)이 지난 10일부터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미공개 스케치 등을 모은 '코덱스 아틀란티쿠스(Codex Atlanticus 또는 Codice Atlantico)'를 전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사진〉 전시는 도서관과 인근의 성모 마리아 성당(Santa Maria della Grazie)에서 진행된다.

총 12권 1천119쪽 분량의 '코덱스 아틀란티쿠스'는 올해부터 6년간 24회에 걸쳐 전량이 3개월씩 주제별로 공개될 예정이다. 첫 전시회의 주제는 '요새, 성채와 대포(Fortezze, bastioni e cannoni)'. 시대를 앞서 살았던 다 빈치의 천재적인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코덱스에는 1478~1518년 사이 그가 각종 무기나 건축물 등을 그려놓은 스케치를 비롯해 수학, 해부학 자료 등 연구노트도 포함된다.

코덱스는 다 빈치의 스케치와 원고 등을 소장하던 조각가 폼페오 레오니에 의해 16세기 말 한데 묶였고, 1962~1970년 복원하는 과정에서 12권으로 정리됐다. 1796년에는 다 빈치의 거의 모든 자료들이 나폴레옹에 빼앗겨 코덱스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됐으나 1815년 나폴레옹의 실각과 함께 암브로시아나 도서관으로 반환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코덱스에 포함되지 않은 다 빈치의 친필 원고 등은 아직도 프랑스에 있다.

한편 밀라노의 수호성인인 성 암브로시우스(St. Ambrosius·340~397)의 이름을 딴 이 도서관은 밀라노의 추기경이었던 페데리코 보로메오(Federico Borromeo·1564~1631)에 의해 1609년 세계 최초의 대중 도서관으로 문을 연 곳이다. 현재는 미술관, 아카데미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미술관에는 롬바르디아 출신 화가의 작품은 물론 카라바조, 보티첼리 등의 명화가 소장돼 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